

가정폭력 아버지 구속

전치2주 상처 '엄중처벌'

96. 7. 8
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박점석(45·노동·서울 은평구 수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힌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방침으로 주목된다.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학교에서 돌아온 딸(13·초중학 2)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때린 뒤, 이어 방안에 있던 망치 손잡이로 머리와 팔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박씨를 붙잡았다. 정남구기자